

전혀 새로운 세상을 보고 왔습니다



정 경 균

한국에이즈연맹회장

우리는 지금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사는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것이라는 증거를 보고 왔습니다. 한 마디로 충격! 그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사전에서도 옥편에서도 그런 세상을 표현할 단어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세상을 묘사할 문장을 찾기 어려워 다음 몇가지를 토막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APCASO란, ASIA/PACIFIC COUNCIL OF AIDS SERVICE ORGANIZATION, 즉 아세아 태평양지역 에이즈사업 민간기구협의회라고 번역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그위에 ICASO, 즉 International Council of AIDS Service Organization이라 하여 캐나다 정부가 지원, 북미, 유럽, 아프리카, 남미, 아태 등 5개 지역으로 구성되는 AIDS관련 국제조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이번 회의 참석자는 27개국 48명, 그중 핵심멤버(상임위원)는 거의가 다 동성연애자와 HIV/AIDS 감염자들이었습니다. 외국의 AIDS관련 조직의 맹렬한 조직체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앞으로의 AIDS방지를 위해 총대를 땀만한 당사자들이었습니다.

3. 저는 이번 3일간의 회의기간동안, 마치 지옥에 출장온 기분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허깅(전신을 껴안는 인사)하는 인사를 아침저녁 태연하게 해야 했고, 같이 앉아 식사도 해야 했으며, 그들이 앞에서 열변을 토할 때는 가끔 침도 날라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3일간을 보냈습니다.

4. 새로운 단어를 많이 배웠습니다. 그중 몇가지만 적어 보겠습니다.

※Sex Worker : 「性 근로자」라고 번역

해야 그 뜻이 맞을 것 같습니다. 창녀, 창남(Prostitute)이란 단어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MSM : Gay(동성 연애자)의 새로운 용어입니다. 즉, Men having Sex with Men의 약자입니다. 하루는 4분과로 진행되는데 그 중 한 분과의 이름이 MSM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 여장남성, 여성으로 성 전환한 사람 등 희한한 사람들이 아주 당당하게 판을 치는 속에서 기가 죽어 있다 돌아왔습니다.

※The 6th Gender : 우리가 아는 자연계의 性은 남성과 여성 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임에서는 제3의 성, 제 4의 성... 제 6의 성 등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남성인데 She라고 호칭하며, 멀쩡한 남성이 Miss라고 자칭합니다. 어떤 자는 I am MSM(남성 동성애), 또는 I am MSW(여성관계남자), WSM(남성관계 여자), 또는 I am MSWM(남녀 모두 상대하는 남자), WSWM(남녀 모두 상대하는 여자),... 거기에 보태기 I am a female(남성의 말), I am a man(여성의 말)!!

뭐가 뭔지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 지금 한창 우리 주변에 현실로 다가와 있는 것을 저는 미처 모르고 이번 회의에 참석했었습니다.

※PWA : AIDS환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People With AIDS, AIDS patient(에이즈환자)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인권상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몸의 상처가 가려워서 뼉뼉 긁는 환자와 함께 3일간을 지나면서

많은 충격과 배움을 얻어 돌아왔습니다.

기성세대는 그런대로 그 꼴 안보고 이 세상을 떠나면 그만입니다. 그 흉칙한 꼴을 보지 않고 갈 수가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나...우리가 낳아 놓은 후손은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저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젊은 세대는 급변하는 문화에 잘도 동화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척도, 우리의 기준을 볼 때 그것은 비극입니다.

하물며 하늘의 척도, 신의 척도에서 그 네들을 용서할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AIDS. 그것은 인류최후의 재앙』이라는 말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 재앙에 당장 우리 가정의 자식들이 노출되어야 하는 형국인데, 지금 우리가 가진 사랑과 재물을 함께 모아 그 재앙을 막는 일에 기성세대가 발벗고 나서야 겠구나 하는 각오를 다지면서 김포에 도착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회의에 다시 가야할 것을 생각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오 신이여! 하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그저 입버릇처럼 기도가 자꾸 터져나오는 3일간이었습니다.

『지옥의 묵시록』에서 조차 상상하지 못했을 세상을 저는 분명히 보고왔습니다.

귀국해 보니 물의 오염으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습니다만 문화적 오염도 미리 부터 방지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72

<편집자 주 : 본 원고는 APCASO 회의에 참석했던 정경균 회장이 편지의 형식으로 보내 오신 글을 게재한 것임>